

# ‘코로나19 1년’ 광주제조업체 82% 직·간접 피해봤다

### 피해업체 49.5% “매출감소·자금압박 심각” 호소

### 131개사 중 53.4% “코로나 위기 1년 더 지속” 전망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 피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광주상공회의소가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광주지역 13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피해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는 81.7%에 달했다.

피해 업체 중 49.5%는 매출 감소, 자금압박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며, 50.5%는 사업추진 지연, 인력수급 어려움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규모별로 대기업은 영업기회 축소, 방역 애로 등의 ‘간접적인 피해(50.0%)’가 매출·주문물량 감소, 자금압박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

(35.7%)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14.4%는 ‘피해 없음’으로 답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부품·자재조달 어려움, 납기 지연 등의 ‘직접적인 피해(41.0%)’가 노무·인력관리 애로와 같은 ‘간접적인 피해(40.2%)’보다 더 많았고, ‘피해 없음’은 18.8%로 나타났다.

수출 비중별로 수출기업은 수출물량 감소, 물류·통관 애로, 해외공장 운영 중단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55.2%)’가 해외전시회 미개최에 따른 거래처 발굴 어려움 등 ‘간접적인 피해(27.6%)’보다 더 많았다.

반대로 내수기업은 노무·인력관

리 애로, 영업기회 축소 등 ‘간접적인 피해(45.1%)’가 내수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36.6%)’보다 더 컸다.

응답 업체의 66.4%는 금년 영업실적이 ‘올해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목표치 달성·근접할 것(28.2%)’, ‘목표 초과 달성할 것(5.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 업체들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 10.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예상 지속기간에 대해선, 응답 업체의 53.4%는 ‘향후 1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후 ‘향후 2년까지’는 24.4%, ‘향후 1년6개월까지’는 14.5%, ‘향후 6개월까지’는 7.6%를 차지했다.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발 위기에 따른 경영 대응책으로 ‘판매·수급처 다양화(45.0%)’, ‘정부지원 정책 활용(41.2%)’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일상 경비예산 축소(36.6%)’, ‘신규사업 발굴(33.6%)’, ‘사업 구조조정(19.1%)’, ‘인력 구조조정(15.3%)’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화 경제협력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내수·소비 활성화(51.9%)’를 가

장 많이 꼽았다.

이후 ‘금융·세제지원(44.3%)’, ‘기업 운영자금 지원(43.5%)’, ‘고용유지·안정 지원(38.2%)’ 순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과 납기 지연, 영업 기회 축소 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심각한 자금압박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규제완화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 코로나 불황에 로또 인생역전?...주간 판매액 9년만에 1000억 돌파

### 12월20~26일 943회차 1000억8000만원 상당 팔려

### 상반기 2조3000억 판매...역대 최고치 달성 가능성

지난주 온라인복권 로또 판매액이 9년 만에 1000억원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인생역전을 노린 로또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26일 판매된 943회차 로또 판매 금액은 1000억8143만2000원이다. 로또 주간 판매액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1년 10월(1268억원) 이후 9년 만이다.

로또는 2002년 하반기 발매를 시작해 이듬해인 2003년에는 3조8242억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사회적으로 열

풍을 일으켰다.

2003년 2월 한 주간 2609억원이 판매돼 주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해 4월12일 당첨금이 이월되며 1등 당첨자 한 명이 407억2000만원을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출천경찰서에 근무하던 현직 경찰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었다.

사행성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04년 8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이월 횟수도 줄였다.

이후 판매액이 감소하며 2007년 2조2677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회복했고, 지난해 사상 처음 4조(4조3181억원)를 넘어섰다.



올해는 상반기 2조3082억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로또 판매가 늘어난 것은 인터넷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영향과 함께 경기 불황이 장기화된 탓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복권은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잘 팔리는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 투자 열풍 등 이른바 ‘빛투’에 편승해 인생역전을 노린 이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정기자

## ‘1억 들여 창업해 월 275만원 남겼다’

### 소상공인수는 644만명·사업체수는 277만개로 집계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수는 644만명, 사업체수는 277만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1억원 가량을 들여 창업했고, 월 275만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 10명 중 6명꼴로 50대 이상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통계청은 올해 7~8월 부처협업으로 수행한 ‘20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28일 공동 발표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44만명으로 전년보다 1.9%(12만명) 증가했다.

도소매업 종사자가 187만명(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숙박·음식점업 155만명(24.1%), ▲제조업 118만명(18.3%)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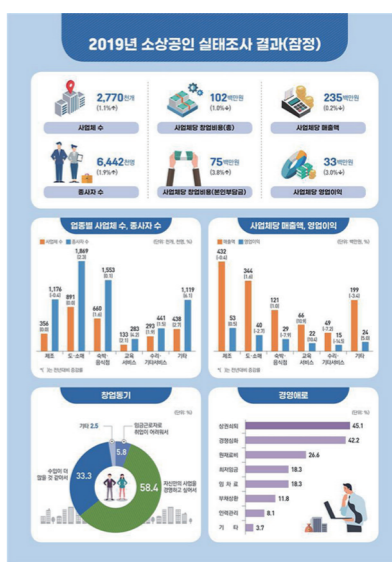
전체 소상공인 종사자 중 개인사업자가 90%, 법인사업자가 10%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 (3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6.7%), 60대 이상(23.8%), 30대(12.8%), 20대 이하(2.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는 277만개로 전년 대비 1.1%(3만개) 증가했다. 도소매업 32.1%(89만개), 숙박·음식점업 23.8%(66만개), 제조업 13.0%(36만개) 등의 순이었다.

사업체당 평균 창업 준비기간은 10.2개월, 창업비용은 1억 200만원에 달했다. 창업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7500만원(73.5%)이었다.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2억 3500만원(월1958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업이익



은 3300만원(3% ↓, 월 275만원), 부채 비율은 51.9%(3.5% ↑), 부채액은 1억 7100만원(5.2% ↓)을 각각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은 경영 애로 사항(복수응답)으로 ▲상권쇠퇴(45.1%) ▲경쟁심화(42.2%), ▲원재료비(26.6%) ▲임차료(18.3%) 등을 꼽았다.

중기부 이은정 소상공인정책과 과장은 “확정치가 내년 2월에 나오면 심층 분석 작업을 거쳐 소상공인 창업, 성장, 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와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실시하는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는 조사항목 설계시 올해의 코로나19 사태 영향과 가속화되는 디지털화, 비대면, 온라인 추세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르노삼성 XM3 첫 유럽수출 선적...내년초 판매 돌입

### 부산공장에서 생산한 XM3 초도물량 750대...수출명 ‘르노 뉴 아르카나’



르노삼성이 부산공장에서 생산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M3’(수출명 뉴 아르카나) 유럽 수출물량을 첫 선적했다.

28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지난 25일

첫 선적을 마친 XM3는 모두 750대로, 우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내 주요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들 물량은 약 40일간의 항해를 거쳐 2021년초 유럽시장에 상륙한다.

르노그룹은 지난 9월 온라인 공개 행사를 통해 르노삼성이 글로벌 프로젝트 연구 개발한 XM3가 부산공장에서 생산돼 내년부터 유럽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XM3의 수출명은 르노그룹 글로벌 프로젝트 명칭에 따라 ‘르노 뉴 아르카나’로 결정되었으며, 주력 파워트레인은 1.3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 및 하이브리드다.

르노 뉴 아르카나는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지역을 주요 시장으로 공략하며, 중동을 비롯해 남미와 오세아니아 등 유럽 이외 지역으로도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뉴 아르카나는 러시아 내수 전용 모델인 기존의 아르카나와는 플랫폼부터 엔진,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 많은 부

분에 차이를 둔 ‘글로벌 시장 공략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뉴 아르카나는 지난 7월부터 르노그룹을 이끌고 있는 루카 데 메오 CEO 부임 이후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모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유럽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첫 번째 주자가 될 예정이다.

유럽에 선보일 주력 파워트레인 1.3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TCe 260)은 르노그룹이 다임러와 공동개발한 차세대 다운사이징 엔진으로 경제성과 주행성능과 더불어 뛰어난 효율성, 주행안정성을 모두 구현해 국내시장에서 이미 좋은 반응을 얻었다.

처음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엔진은 르노그룹의 친환경 미래전략을 보여줄 새로운 파워트레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XM3 유럽수출모델은 유럽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블루 잔지바르(Blue Zanzibar)’와 ‘오렌지 발렌시아(Orange Valencia)’ 등 개성적인 보디컬러도 신규 적용하고 있다.

서선욱기자

## 맘스터치, ‘싸이버거’ 출시 15주년 스크래치 쿠폰 이벤트 진행한다

맘스터치는 ‘싸이버거 배달주문 스크래치 쿠폰 이벤트’를 내년 1월10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싸이버거 출시 15주년 기념이다.

맘스터치는 자사 공식 앱, 배민 앱, 요기요 앱, 전화 주문 등을 통해 싸이버거를 배달 주문하는 고객에게 스크래치 쿠폰 1매를 증정한다. 스크래치 쿠폰을 긁어 나온 번호를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 1만명에게는 싸이버거 단품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매장별 쿠폰 채고 소진에 따라 이벤트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외에도 맘스터치는 1월20일까지 인기 버거와 치킨, 사이드 메뉴를 99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맘스99팩’을 한정 판매한다. ‘맘스99팩’ 3종은 ▲맘스99 치킨팩 ▲맘스99 버거팩 ▲



맘스99 강정팩 등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점점에서의 이벤트를 통해 맘스터치만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벤트를 통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동원기자

## “행복하소 건강하소 파riba게뜨 신제품 사소”

‘요가 카우’, 제품·패키지 적용 파riba게뜨가 2021년 ‘신축(辛丑)년’을 맞이해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21 행복하소 건강하소’를 주제로 ‘요가 하는 소’ 캐릭터를 익살스럽게 표현한 ‘요가 카우(Yoga Cow)’를 제품과 패키지에 적용했다.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2020년을 극복하고, 2021년에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

하길 염원하는 마음을 위트있게 전한다.

소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구현되고, 부드러운 화이트 크림과 상큼한 사과 잼이 조화를 이룬 케이크 ‘2021 새해 복 많이 받으소’를 필두로 해발 1000m 대관령 설(雪) 목장의 신선한 유기농 우유로 만들어진 우유 크림에 마스카르포네 생크림이 더해진 ‘설(雪)목장 우유롤’, 설 목장 유기농 우유와 부드러운 생크

림이 함유해 촉촉하고 부드럽게 구워진 ‘2021 건강하소 카스테라’, 프리미엄 버터와 바닐라빈이 듬뿍 들어 부드러운 우유 쿠키가 우유 팩 모양 패키지에 담긴 ‘설 목장 우유 쿠키’, 나무 나이테를 닮아 장수를 기원하는 독일 전통 과자 ‘바움쿠헤넨(Baumkuchen)’에 ‘2021년’ 의미가 더해진 ‘21겹 설목장 우유 바움쿠헤넨’ 등이다.

김미희기자

